

LS 증권 주간 Global ESG News

주간 ESG 뉴스 2026.06.26~2026.07.03

구분	시장 동향
Ener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30년까지 비화석E 발전 비중 50%로 확대 목표' (2026.06.29, ESG Today) 중국 정부는 새 5개년 계획을 통해 '30년까지 비화석에너지 발전 비중 50%로 확대, 석탄·석유 소비 Peak-Out으로의 전환 목표를 제시. 다만 '25년 이미 비화석 비중이 42.3%에 달하며 목표치가 소극적이란 비판 제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NEF, 항공업계 탄소 비용 급증으로 수익성 압박 (2026.06.29, ESG Today) BloombergNEF는 지속가능항공유 의무화 및 탄소가격제 강화로 항공업계 환경 규제 준수 비용이 '35년까지 \$48B('26년 대비 4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 특히 EU발 항공편에 비용 집중되며 유럽 항공사의 적자 전환 위험 확대
Gover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자동차 산업 순환경제 규정 공식 승인 (2026.06.30, ESG News) EU는 차량 설계부터 폐차 처리까지 전 수명주기를 아우르는 순환경제 규정을 공식 채택. 발효 6년 후부터 신규 차량 제조 시 재활용 플라스틱을 최소 15%(10년 후 25%)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차 제조사에 생산자 책임 확대 부과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빅테크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후 규제 완화 검토 (2026.07.02, FT) EU가 빅테크 기업들의 로비 이후, 가스발전 기반 데이터센터의 기후 영향을 저명한 청정에너지 인증서로 상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초안 마련. 빅테크 및 로비단체들은 비용 상승 우려를 이유로 요건 완화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음
Corpo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ZN, 남아공 토지복원 프로젝트 탄소배출권 절반 매입 (2026.06.30, Bloomberg) 아마존은 남아공에서 Spekboom 관목을 식재해 황폐지를 복원하는 프로젝트의 탄소배출권 중 195만 개를 10년 이상에 걸쳐 고정가로 매입하기로 결정. 이를 자사 지속가능성 거리를 통해 넷제로 목표를 가진 기업들에 재판매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KR, EDF 북미 재생에너지 사업 \$4.2B에 인수 (2026.07.01, Reuters) KKR은 EDF Power Solutions의 미국·캐나다 재생에너지 사업 운영 및 자산을 \$4.2B에 인수, 최대 \$390K의 추가 지급 가능 금액도 제시. EDF는 프랑스 내 원전 유지와 신규 원전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 자산 매각을 추진
Fu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 PKZH·네덜란드 APG, 프랑스 재생E 기업 지분 38% 인수 (2026.06.30, Net Zero Investor) 스위스 연기금 PKZH·네덜란드 연기금 APG는 프랑스 재생에너지 기업 Kallista의 지분 38%를 인수. Kallista는 육상 풍력 및 태양광 자산 개발 실적을 보유 중이며,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 부문에서도 사업을 확대 중. 두 연기금은 장기 투자 시계와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플랫폼에 투자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웨덴 Alecta, 기후 사모신용 전략에 \$110M 투자 (2026.06.30, New Private Market) 스웨덴 연기금 Alecta는 스위스 임팩트 자산운용사 responsAbility의 사모신용 전략에 \$110M를 투자하기로 약정. 이번 투자는 responsAbility와의 세 번째 투자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부문을 지원할 예정. 또한 금융기관들이 기후 리스크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RBKC, 기후 리스크 평가 부실로 소송 직면 (2026.07.01, Net Zero Investor) 영국 연기금 RBKC는 기후 리스크 평가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직면. 기후 단체 ClientEarth는 RBKC가 최근 벨류에이션에서 기후 리스크 측정에서 있어 온도 경로나 장기 전망 없이 부실한 분석을 진행했다며 제소. 연기금이 최소한의 공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연금제도의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켰다는 입장 밝히기도

자료: 언론보도, LS 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투자전략팀).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